

하나됨과 나눔

“ 사랑,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

< 베드로전서 4장 8-9절 >

- 예배 후, 역할공동체 실행위원회 전체모임이 있습니다.(40주년 준비)
- 연령별사랑방 전체교사모임 오후 2시 아브라함 장막에서 모입니다.
연령별사랑방 담당교역자, 부장, 생활지도 선생님들이 참석하십니다.
- 후반기 멋쟁이학교 학부모 모임이 오후 3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 꾸러기학교 겨울여행이 21일(화)-22일(수) 이천(농업테마공원)으로
어린이학교 학년말여행이 20일(월)-22일(수) 공주(산림휴양마을)로
각각 다녀옵니다.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허철영 집사 · 강춘자 권사 가정(감사)
정해분 권사 (구순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정재훈 목사 (생일 감사)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0 - 47 호

2023년 11월 19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공동체 김장하는 날 풍경

해마다 11월 둘째 주에는 함께 힘을 모아서 공동체 김장을 합니다. 주중에는 밭에서 키운 가을배추를 미리 뽑아서 부엌 근처에 쌓아둡니다. 노작 시간에 멧쟁이학교 학생들이 솜씨를 발휘해서 배추를 자르고, 부엌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기 좋게 쌓아 올립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여러모로 걱정했음에도 배추는 꽤나 통이 커졌고 속이 노랗게 짝 들어찼습니다.

생활공동체 식구들과 주방 식구들은 멧쟁이들이 날라 온 배추를 다듬느라 손이 바쁩니다. 헤벌쭙 벌어져 버린 배추 겉잎을 떼어내고 어느새 단정해진 배추를 썩썩 잘라 반 통으로 만듭니다. 한쪽에서는 큰 고무대야에 반 통으로 다듬어진 배추를 배가 보이게 뒤집어 놓고는 천일염으로 배추 속을 절이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고무대야 7개가 넘도록 짝 들어찼습니다. 이제 나머지는 시간이 해결해줄 차례입니다.

자연예배당 안쪽에서는 여학생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양파와 쪽파를 다듬으며 하하 호호 연신 즐거운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학년 남학생들은 양파를 까다가 눈이 매운지 눈물을 찝끔찝끔 흘리며, '선생님 슬프지 않는데 눈물이 자꾸 흘러요!' 그 소리에 다 같이 한바탕 웃음 소리가 터졌습니다. 삼삼오오 한 자리씩 모여 앉아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면서 손을 놀리다 보니 어느샌가 채소 다듬기도 금세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공동체 식구들도 이곳저곳 흩어져서 학생들과 손발을 맞추어 속도를 올립니다. 벌써 저녁 시간이 되고 오후 내 고생한 학생들은 컵라면을 하나씩 손에 들고, 서로의 수고를 이야기하며 그날의 활약상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제 밤이 깊어가고 멧쟁이 고학년 남학생들과 남자 선생님들이 활약할 차례입니다. 늦은 밤에 나와서 낮에 절여두었던 배추들을 뒤집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을 잘 맞추어야, 적당하게 숨이 죽은 알맞은 절인 배추가 됩니다. 고학년 중에는 작년에 이미 경험해 본 친구들이 요령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빈 고무대야를 하나

가져다 두고, 절이고 있는 대야에서, 위에 쌓인 배추들을 꺼내 빈 대야 아래에 깔리도록 옮겨 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 통씩 옆으로 옮겨 담다 보면, 어느샌가 아래위의 배추들이 자리를 바꾸고 숨이 죽기 시작합니다.

이제 진짜 힘든 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세 접 가까이 되는 배추들을 물에 씻어서 주방 테이블 위에 가지런히 쌓아야 합니다. 너무 이르게 씻으면 배추가 제대로 절여지지 않고, 너무 늦은 시간에 씻으면 김치가 짜서 먹기가 어렵습니다. 각자가 맡은 물통과 싱크대 앞에서 배추를 씻겨서 넘어오면, 다음 사람이 받아서 씻고 넘겨주고, 이렇게 차례로 6개의 물통을 거쳐 오면 드디어 주방 테이블에 레고 블록처럼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밀리지 않도록 속도를 맞추다 보면, 어느샌가 빠근해진 허리가 시간이 지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씩 비어가는 고무대야를 보면서, 점차 높이 쌓여가는 배추 탑을 보면서 성취감을 느낍니다. 다 끝마친 뒤에는 기념사진 찰칵!

이제 아침에는 여학생들과 공동체 식구들이 활약할 차례입니다. 그새 간수가 빠진 배추 속을 빨갭게 비비는 일만 남았습니다. 어느 누구 께부리는 이 하나 없어서 일이 금세 마칩니다. 빨갭게 물든 김치를 보면 이상하게 가슴이 뿌듯합니다. 이제 한동안 김치 걱정은 없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점심에 먹는 보쌈입니다. 김치 속과 배추 속을 곁들인 보쌈은 맛이 일품입니다. 이날 점심은 드디어 김장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공식 선언과도 같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손을 보탠 모든 수고와 애씀이 축하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비록 함께하지 않았더라도 식사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는 같이 그 즐거움을 누립니다. 다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의 유익을 다시금 깨달으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맛보는 행복한 시간입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한주간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 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 창세기 1장 26~27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589, 515 / 543

기도 :

성경 : 욥기 34장

제목 : 엘리후의 연설

1. 내용: 엘리후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욥을 정죄하였다.(What)

<문단구분>

1~4절 <엘리후가 세 친구에게 말하다>

5~9절 <엘리후가 욥의 주장을 요약하다>

10~30절 <엘리후가 하나님의 공의와 절대 주권을 주장하다.>

31~37절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다>

2. 의미: 엘리후가 자신의 주장에 힘을 얻기 위해 세 친구를 동원하다.(Why)

1) 엘리후는 과장된 표현으로 욥을 죄인 취급하고 있다.

2) 엘리후는 세 친구들에게 자기 주장에 동의를 구하고 있다.

3)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정죄한다.

3. 적용: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How)

1) 조금 더 안다고 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를 갖추자

2) 독단적인 태도를 주의하자

성서일기

감사

최근에 멧쟁이학교 홈커밍데이가 있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근래 들어 많이 하지 못해 아쉬웠는데, 홈커밍데이 시작하자마자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좋아하는 마음과 달리 제 몸은 불과 15분 만에 움직여지지 않았고, 그 뒤론 뛰지도 못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건지 참 힘들었는데, 멧쟁이학교 선생님들은 아직도 잘 뛰시고 대단하셨습니다. 축구가 끝나고 교회에서 아주 오랜만에 멧쟁이학교 학생들, 선생님들과 졸업생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맛있었고, 옛날 생각나는 '정좌'의 시간도 맛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은 후 교육관에 모여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정태일 목사님의 훈화 말씀을 듣고 멧쟁이들과 헤어졌습니다. 다시한번 멧쟁이학교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대학교에서 지내다 집에 가기만 하면 아빠가 해주던 얘기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항상 정치, 교회, 사랑(연애)입니다. 오늘은 아빠의 사랑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아빠는 엄마랑 연애할 때 만나면 싸우다가도 다음날이 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시 뒤에 이끌리듯 만났답니다. 아직도 연애를 하시는지 제가 집만 가면 학교나 교회 일로 싸우십니다. 정말 큰일이 아닌가 싶다가도 다음날 되면 풀려 있는 것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참고 사시는 걸 수 있지만 제 눈에는 그냥 사랑싸움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아들은 지금 연애도 하지 못해 서러워 죽겠는데, 제 앞에서 불이나 놓고 참 나쁘죠?

제가 말은 이렇게 해도 저희 부모님은 교회, 학교에 대한 애정이 다릅니다. 아들 된 도리로서 이 글을 읽으신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땅에 있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지나가다 마주치면 수고한다고 고생한다고 한마디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두서없이 쓴 글을 읽어 주신 분들, 아무나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주시는 분들, 교회와 학교를 위해 힘써 주시는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쓰는 도중 제 동생이 반소매 입고 김장하다가 독감 걸렸다고 전화 왔네요. 다들 추운 날씨 대비 잘하시고 항상 건강한 모습으로 배요. 고3 여러분은 수능 보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늘푸른사랑방 김정흠 청년

지체들의 삶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정재훈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예배의 찬송
- *기원의 기도
- *기원찬송

에베소서 3 : 17b-21 인도자
68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참회의 기도
- *용서의 말씀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누가복음 7 : 48 인도자
368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교

창세기 1 : 26 - 31 설교자
288 미리내사랑방
“ 그 형상대로 열매 맺는 삶 ” 권재만 목사

의탁과 성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봉헌기도
- *영광찬송
- *위탁의 말씀
- *강복기도

315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김기환 차현주 / 봉헌위원 : 김용필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박민정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이예은 김보경 진시우 진나우

예 배

공동기도문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쁨의 단을 거두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열매 맺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아멘

그 형상대로 열매 맺는 삶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자.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27> 그리고 땅에 충만하며 정복하여 다스리라 명령하셨습니다.<27> 하나님의 형상을 말씀하실 때 우리의 형상, 그리고 모양대로 만들자 말씀하셨습니다.<26> 그 후에 세상을 보시며 참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31>

자랑할 수확물은 형상대로 가꾸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에 정원사로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하나 되어 이 땅을 가꾸어가는 것을 원하셨지만 우리는 그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엡2:16>

우리는 그 형상대로 열매를 맺읍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시다.<벧후1:4> 하나님께서는 다스릴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의무 또한 주셨습니다. 한해를 돌아보며 그 열매를 얼마나 많이 맺었는지 돌아보며 감사하는 시간이 됩시다. 또한 대강절을 준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엡2:13>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최기찬 전도사 / 기도 : 박경희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맛있는 제철 무로 깍두기 담그기를 했습니다. 조심조심 무와 대파를 썰고 양념을 넣어 버무리기까지 모든 과정에 꾸러기들의 손맛을 더했습니다. 갓 담은 깍두기를 맵지도 않은지 서너 개 씩 덩석덩석 맛있게 먹는 꾸러기들의 모습이 매우 귀여웠습니다.

서울 에너지드림센터에 가서 기후변화가 우리의 삶과 세상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숲의 아이 드림이가 나오는 그림 자극을 보며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이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환경 애니메이션 '월 E'를 학교에서 관람했습니다. 생명체가 사라지고 온통 쓰레기만 가득한 지구에서 쓰레기를 뒤지며 살고 있는 로봇 '월 E'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에서는 풀 한 포기 지구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이 곁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꾸러기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아니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름다운 자연이 늘 곁에 함께 있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이제는 낮에도 차가운 공기가 느껴집니다. 어린이들의 발이 시렵기도 하고 손과 코끝이 차갑기도 합니다. 그래도 학교에 일찍 온 어린이들은 주차창에 고인 물에 살얼음이 낀 웅덩이를 열심히 나무 막대기로 깨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의 일기에는 추운 겨울이 오는 건 싫지만 학교에 서리가 내려앉은 모습을 보러오는 길이 설렌다고 적혀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통학을 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방학하기

배움과 가르침

전까지는 눈이 내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린이들은 벌써 첫 눈이 하얗게 쌓이기를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

지난 주간엔 공동체 김장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김장 주간엔 특별히 돕는 일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어린이들은 김장 주간을 기다립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담근 김장김치와 수육이 점심식사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또 김장소에 들어있는 '굴'도 좋아하면 좋아해서, 먹기 힘든 친구는 힘들어서 늘 큰 이슈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 주말엔 어린이들의 각 가정에서도 김장 계획이 많으시더라구요. 겨울을 준비하며 또 하나의 추억이 쌓여갑니다~

< 교사 : 정다운 >

멋쟁이학교

아침에 살얼음이 꾸덕꾸덕 밟히는 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멋쟁이들의 옷 두께와 목도리 갓수도 날로 늘어갑니다. 그런 와중에 6학년은 좋은 컨디션으로 수능을 준비하기 위해 가정학습기간으로 보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온 여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수능은 끝났지만 진로 탐색은 이후로도 이어집니다. 큰 시험을 치른 6학년들에게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수요일부터는 김장을 하는 과정을 가졌습니다. 배추와 무를 수확하고, 토막내고, 절이고, 씻고, 양념을 바르고, 보관하는 모든 과정에 멋쟁이들이 힘껏 참여했습니다. 특히 4, 5학년이 주축으로 최선을 다해 만들어서 그런지 금요일 점심에 수육과 함께 맛보는 새김치는 정말 맛있었습니다.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감기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학기 마무리를 향해 나아가는 중요한 이때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참으로 감사하다.

작년 이맘때는 갑자기 몸이 좋지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려는데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막상 진찰을 받고나니 내 앞길이 막막하여 잠도 제대로 안 오고, 이것저것 생각이 많이 나서 잠을 설 칠 때가 하루 이틀이 아니기에.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혼자서 걱정을 많이 했다.

내가 혼자 아픈 것은 괜찮은데 다른 사람이 피해가 가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도 많이 나고, 나로 인해서 주변사람이 힘들면 안되는데 하고 걱정도 되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를 힘들게 했다.

특히 옆에 있는 이권사가 가장 힘들텐데, 누구 의지 할 사람도 없고 혼자 맘고생을 하고 살텐디... 마음은 그러 하지만 사월이 되도록 차도는 없는 것 같고 거기다가 치질까지와서 힘들게 하고 누구에게 원망 할 수도 없고 모든 게 내 탓이요 라는 생각만 들고.....

그렇게 날짜는 가고 그때부터 말을 듣기로 하고 강화도에서 오월 유월을 지내고 시간이 돼서 다시 검사를 받는데 어찌나 떨리던지 그때 처음으로 진실하게 내마음 속에서 우러난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

만일 병이거든 빨리 데려가서 다른 사람들 고생 시키시지 마시라고 그것뿐이라고. 그런후 병원을 가니 시월에 CT찍고 결과를 보자고... 시월에 병원 가서 다시 검사를 하고, 다시 십이월에 CT찍고 보자고 해서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다.

지금도 만나는 분들이 몸은 괜찮고? 먹는 것은 어떤가? 하고 물으시면 없어서 못 먹는다고 대답한다. 그 말은 농담이 아니다 진담이다. 다만 가려서 먹을 뿐이다.

그때의 생각과 다르게 지금은 모든 것을 내 맘대로 하려는 마음이 굴뚝같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갈대런가?

지금까지 기도와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모두들 좋은 한해의 마무리가 되시길...

그루터기사랑방 나송주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이어진 전도사

찬 송 : 405, 286

성 경 : 골로새서 1장 21~29절

말 씬 : 신앙공동체를 튼튼히 세워갑시다

중보기도 :

1. 세계 평화와 선교를 위해 <전쟁 중에 있는 곳에 평화가 있기를>
 - *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땅의 사람들이 속히 평화를 맞이하기를. 그리고 세상의 기독교인들이 평화와 희생자들을 위해 힘쓰길.
2. 교회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교회 학교들을 위해>
 - * 젊은 사람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는 주일 학교, 교회 모임들에 은혜가 부어지도록.
 - * 복음이 어린이-청소년-청년들에게도 넓게 선포되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 1) 대입 수능시험을 보는 학생들을 위해
 - 2) 김장 과정을 위해

<생활공동체 소식 >

주중에 공동체 김장을 했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 양 이틀에 걸쳐 멧쟁이학교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배추를 뽑고 다듬고 절이는 과정부터 속 재료를 준비하고 버무리기까지 모든 과정에 많은 일손들이 더해졌습니다. 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니 순식간에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생활공동체는 계속 심방 중에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하며 함께 삶을 나누는 귀한 시간입니다.

모든 심방이 끝까지 잘 마무리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장영미 전도사 >